



케이스 스터디:

유럽의 자동차 제조 회사가 60개국의 시장에서 고객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방법





배경

유럽의 한 다국적 자동차 제조 회사는 수년 전 최초의 커넥티드 카를 런칭했으며 현재 60개국 이상의 시장에서 도로 위를 달리는 수십만 대의 커넥티드 카를 생산했습니다.

앞으로 자율 주행, 커넥티드 카, 전기차, 공유 차량과 같은 요소는 비즈니스 전략의 중심 주제가 될 것입니다.

회사에서는 사용자가 집에 도착했을 때 조명과 온도가 미리 설정되도록 가정환경과 차량이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사례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이 자동차 제조사는 운전자가 차량과 간편한 상호작용을 누리고 더 넓은 차량 생태계를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도전 과제

이 자동차 제조사는 글로벌한 디지털 연결 범위를 확보하고 이를 성장시키기 원합니다. 이미 60개 이상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지만 진입한 모든 시장에서 차량 커넥티비티를 확장 및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 자동차 제조사는 차량이 언제 어디서나 더 넓은 연결된 생태계와 플랫폼에 접속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각 국가마다 커넥티비티와 연결을 통제하는 규제는 상이하지만 차량은 국경을 넘나들며, 운전자는 지역을 불문하고 균일한 경험을 원하기 때문에 다국적 시장에서 이는 매우 도전적인 과제로 다가왔습니다.

자동차 제조사는 글로벌한 커넥티비티 범위를 확보하려면 현지화된 제품과 서비스를 갖춘 글로벌한 솔루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필요조건

글로벌하고 지속 가능한 연결성

해당 자동차 제조사는 글로벌한 연결을 제공하면서 기존 통신망과 차량을 연결시켜주는 서비스 가입을 관리해줄 파트너가 필요했습니다.

이는 OTA(무선) 업데이트를 지원하는 eSIM 기술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OTA는 자동차 제조사에 예측 가능한 관리와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포함한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차량 소유주는 딜러에게 차량을 가져오지 않고도 OTA를 통해 차량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eSIM을 활용한다면 차량 소유주는 딜러에게 방문하지 않고도 연결에 관한 걱정 없이 서비스를 즐길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장점은 차량 상태를 쉽게 관리할 수 있게 되어 차량을 완벽한 관리 및 점검 상태로 유지할 수 있고 미래의 차량 설계 개선에 관한 가치 있는 인사이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개인화 서비스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고객이 다른 차량으로 옮겨 탈 경우 프로파일을 활용하여 새로운 차량에 운전자 맞춤 설정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SIM은 설정이 어렵고 특히 다수의 이동통신사업자를 통해 연결해야 한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네트워크 독립성 역시 올바른 커넥티비티 파트너를 선택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는 eSIM 플랫폼 제공업체뿐만 아니라 커넥티드 차량에 네트워크 접속을 제공하는 이동통신사업자에도 적용됩니다. 커넥티비티 지속성을 유지하는 것은 서비스 품질과 가격 측면에서 모두 중요합니다. 또한, 국가마다 영구 로밍과 IoT 연결에 관해 각기 다른 규제가 적용되므로 국가 내 규제 요소를 가장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에 관한 전문 지식 및 조언을 제공할 수 있는 파트너와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와 함께 하는 성공적인 파트너쉽

Tata Communications는 커넥티비티에 관련된 모든 요소를 통합 관리하여 자동차 제조사가 차량 개발과 제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글로벌 커넥티비티 전략 지원을 위해 Tata Communications를 선택해야 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Tata Communications가 단순한 기술 제공 업체가 아닌 처음부터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이기 때문입니다. Tata Communications는 자체 파트너쉽과 640개 이상의 모바일 네트워크 이용 계약을 기반으로 200개 국가와 영토에서 안정적인 커넥티비티를 제공합니다.

완전한 캐리어 애그노스틱(Carrier-agnostic)을 자랑하는 Tata Communications는 신호 강도 및 서비스 품질, 네트워크 유효성 같은 다양한 강점을 기반으로 개별 국가의 이동통신 간 트래픽 전환을 지원하며 지속적이고 안전한 커넥티비티를 제공합니다.

솔루션

Tata Communications는 자동차 제조사에 자체 듀얼 eSIM 접근 방식을 지원합니다. 이는 주요 텔레매틱스 정보와 인포테인먼트 서비스를 별도로 관리할 수 있게 해줍니다.

차량 업데이트 시에도 운전자는 모든 주요 기능을 즐길 수 있고 자동차 제조사는 어떤 서비스도 중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듀얼 eSIM은 자동차 제조사가 두 가지 요구 사항을 독립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Tata Communications MOVE™ eSIM Hub는 특정 통신사에 의존하지 않고 단일 API 추상화 레이어를 활용해 서로 다른 모바일 네트워크와 여러 SIM 제공 업체 간의 균일한 작동을 보장합니다.

Tata Communications는 네트워크 커넥티비티, 비용, 정책 관리, 네트워크 성능에 관한 인사이트와 이해를 제공합니다. 자동차 제조사는 현지 이동통신사업자에 의존하지 않고도 전 세계 규모의 연결 통제 및 정보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Tata Communications는 자동차 제조사가 모든 연결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나의 ‘재고관리단위(SKU)’를 통해 인벤토리 레코드 관리를 도와줍니다. 또한 자동차 제조사가 전 세계에서 현지 통신 규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즉, Tata Communications는 균일한 SIM 프로비저닝을 가능케 하여 자동차 제조사가 합리적인 커넥티비티 비용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도와주고, 결과적으로 고객은 적절한 비용에 최고의 데이터 요금제와 넓은 커버리지를 누릴 수 있습니다.



